

2018년 창원시 수출입동향 조사

2019. 1

Contents

I. 조사개요	1
II. 2018년 창원시 수출입	2
1. 수출입 동향	2
2. 산업별 수출	4
3. 품목별 수출입	5
4. 지역별 무역수지	9
5. 가공단계별 수출입	10
6. 국가(지역)별 수출입	11
III. 요약 및 시사점	14
<부 록> 창원시 분기별 수출입동향표	

I. 조사개요

1. 조사목적

- 본 조사는 창원시의 수출입 동향을 살펴보고, 주요 수출품과 주요 교역국 등을 파악하여 수출입기업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물론 정책당국의 수출지원 및 정책수립에 참고자료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2. 조사대상

- 2018년 창원지역 수출입 실적 전반

3. 조사방법

- 한국무역협회, 관세청, 창원상의 내부자료 등 통계자료 분석

4. 조사기간

- 2019. 1. 17 ~ 19

5. 조사사항

- 수출입량 변화(전년동기·전분기 대비)
- 수출입 비중(전국, 경남)
- 무역수지 실적 등
- 주요 수출입 품목
- 국내 지역별 무역수지
- 주요 교역국 및 대륙별 수출입 동향
- 수출입 성질별 동향

Ⅱ. 2018년 창원시 수출입

1. 수출입 동향

- 2018년 창원시 수출은 전년 대비 8.5% 감소한 161억 1,268만 불, 수입은 7.5% 증가한 58억 7,027만 불로 총교역액은 4.7% 감소한 219억 8,295만 불 실적을 올렸음.
수출액 감소와 수입액 증가로 무역수지 흑자액은 15.7% 감소한 102억 4,240만 불을 기록했음.
- 2018년 경남 수출은 32.3% 감소한 402억 6,042만 불, 수입은 16.0% 증가한 203억 5,992만 불을 기록했음.
전국 실적을 보면 수출은 5.5% 증가한 6,051억 6,919만 불, 수입은 11.9% 증가한 5,351억 7,239만 불 실적을 올렸음.
창원시 교역 비중은 경남 총 수출액의 40.0%, 전국의 2.7%를 점했고, 수입은 경남의 28.8%, 전국 1.1%를 차지했음. 무역수지 흑자액은 경남과 전국 비중이 각각 51.5%, 14.6%를 차지해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를 견인했음.

2018년 창원 수출입 실적

(단위 : 천불, %)

구분				전국	[창원비중]
	창원	경남	[창원비중]		
수출	16,112,675 (-8.5)	40,260,417 (-32.3)	40.0	605,169,190 (5.5)	2.7
수입	5,870,272 (7.5)	20,359,918 (16.0)	31.1	535,172,391 (11.9)	1.1
무역수지	10,242,403 (-15.7)	19,900,499 (-52.5)	51.5	69,996,799 (-26.5)	14.6
총교역액	21,982,947 (-4.7)	60,620,335 (-21.3)	36.3	1,140,341,581 (8.4)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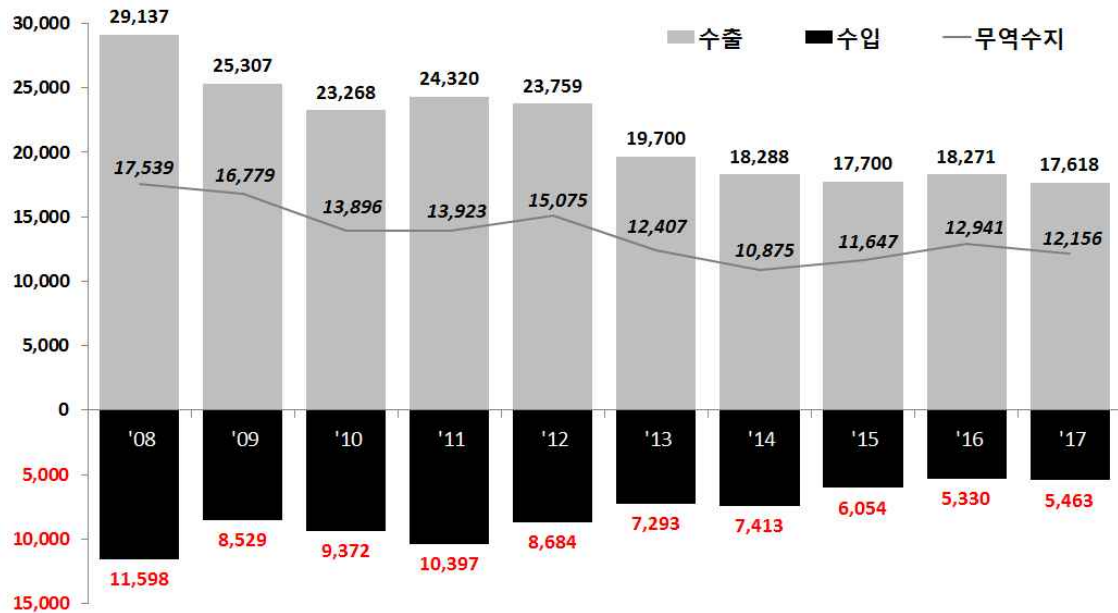
<자료 : KITA 통계 가공>

※ ()는 2017년 대비 증감

- 전국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반면, 창원 수출은 2006년(164억 2,464만 불) 이후 최저 실적을 기록했다. 총교역액도 2004년(205억 8962만 불) 이후 가장 낮은 실적임.

창원시 연도별 수출입, 무역수지 동향

(단위 : 백만 불, %)



(단위 : 천 불, %)

	수출 (증감)	수입 (증감)	무역수지 (증감)	총교역액 (증감)
2009	25,307,249 (-13.1)	8,528,640 (-26.5)	16,778,609 (-4.3)	33,835,889 (-16.9)
2010	23,267,794 (-8.1)	9,372,294 (9.9)	13,895,500 (-17.2)	32,640,088 (-3.5)
2011	24,320,235 (4.5)	10,397,393 (10.9)	13,922,842 (0.2)	34,717,628 (6.4)
2012	23,759,449 (-2.3)	8,684,036 (-16.5)	15,075,413 (8.3)	32,430,372 (-6.6)
2013	19,699,784 (-17.1)	7,293,131 (-16.0)	12,406,653 (-17.7)	26,992,915 (-16.8)
2014	18,288,072 (-7.2)	7,412,655 (1.6)	10,875,417 (-12.3)	25,700,727 (-4.8)
2015	17,700,317 (-3.2)	6,053,697 (-18.3)	11,646,620 (7.1)	23,754,014 (-7.6)
2016	18,271,109 (3.2)	5,329,959 (-12.0)	12,941,150 (11.1)	23,601,068 (-0.6)
2017	17,608,232 (-3.6)	5,463,258 (2.5)	12,144,974 (-6.2)	23,071,490 (-2.2)
2018	16,112,675 (-8.5)	5,870,272 (7.5)	10,242,403 (-15.7)	21,982,947 (-4.7)

<자료 : KITA 통계 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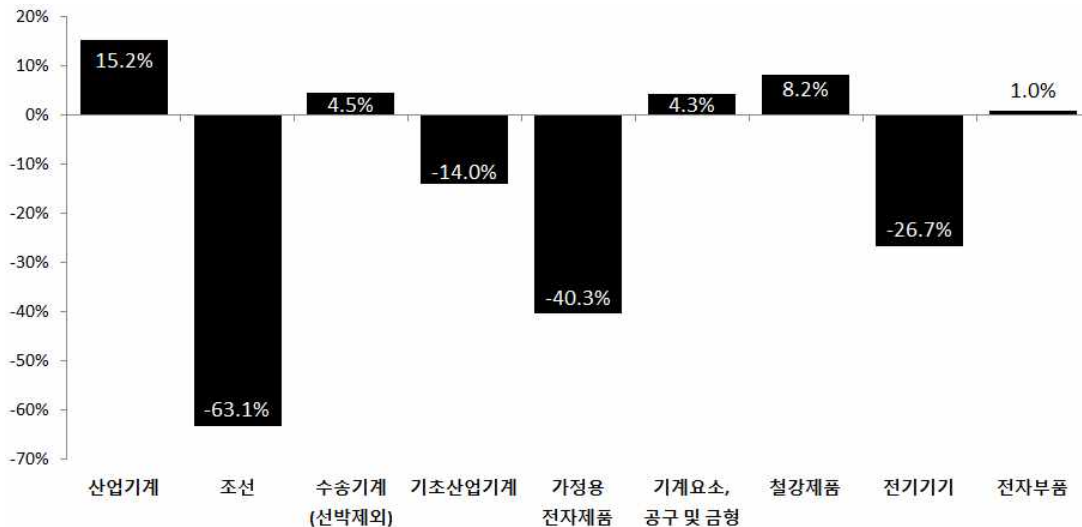
※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율임.

2. 산업별 수출실적

- 2018년 창원 수출실적 감소는 조선과 가정용전자제품, 전기기기 수출의 감소가 주도했음.

산업별 수출액 증감(2017년 대비)을 보면 산업기계(+15.2%), 철강제품(+8.2%), 수송기계(조선제외)(+4.5%), 기계요소·공구 및 금형(+4.3%), 전자부품(+1.0%) 수출은 증가했으나, 조선(-63.1%), 가정용전자제품(-40.3%), 전기기기(-26.7%), 기초산업기계(-14.0%) 수출은 감소했음.

2018년 창원시 주요 산업별 수출 증감(전년 동기 대비)



<자료 : KITA 통계 가공>

- 조선, 가정용전자제품 수출의 급감에도 창원 수출실적을 현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금속공작기계(+33.1%), 건설광산기계(+21.6%)의 수출 호조에 따른 것임.

- 가정용전자제품의 수출 급감은 주력 시장인 미국의 보호무역주의(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셰이프가드 조치)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음. 창원의 對미 주력 수출품은 건조기(섬유기계),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이 주를 이룸.

2018년 기준 냉장고, 세탁기, 섬유기계 등 주력 수출품의 수출액이 큰

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세탁기 수출이 전년 대비 49.7%로 급락했음.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로 사실상 일정 부문(한국산 對미 세탁기 수출 120만대 초과 시 50% 관세)이상 수출이 불가능한 데 따른 것임.

창원 對미 가전제품 수출 실적

(단위 : 천불)

순 번	품목 (MTI 4단위)	2017년	(비중)	2018년	(비중)	전년 대비
1	섬유기계	465,889	(12.3%)	424,073	(10.8%)	-9.0%
2	냉장고	483,066	(12.8%)	385,555	(9.8%)	-20.2%
3	세탁기	312,944	(8.3%)	157,547	(4.0%)	-49.7%
4	접시세척기	113,140	(3.0%)	117,351	(3.0%)	3.7%
5	전자레인지	40,202	(1.1%)	25,443	(0.6%)	-36.7%
	총계	3,782,001		3,919,276		3.6%

※ 비중은 창원 對미 총수출액 중 비중

<자료 : KITA 통계 가공>

3. 품목별 수출입

1) 주요 수출품목(MTI¹⁾ 3단위 기준)

- 2018년 창원시 주요수출품(MTI 3단위 기준)은 ‘자동차부품’(18억 8,713만 불), ‘건설광산기계’(14억 8,770만 불), ‘원동기 및 펌프’(14억 8,057만 불), ‘금속공작기계’(14억 5,215만 불), ‘기계요소’(9억 7,660만 불),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9억 1,376만 불) 등임.
- 2017년과 비교해 수출액이 증가한 품목은 ‘항공기 및 부품’(+88.3%), ‘선재·봉강 및 철근’(+35.6%), ‘금속공작기계’(+33.1%), ‘건설광산기계’(+21.6%), ‘자동차’(+17.9%), ‘철강판’(+14.9%), ‘운반하역기계’(+14.2%), ‘주단조품’(+6.0%), ‘반도체’(+5.9%) 등임.

1) 무역동향분석에 사용되는 품목분류 코드로 비슷한 종류의 HS코드를 묶어 코드와 품목명을 부여한 체계

2018년 창원시 주요 수출품

순번	품 목 (MTI 3단위)	2017 (천불)	2018 (천불)	증감 (%)	주요 수출국
1	자동차부품	1,952,590	1,887,125	-3.4	중국, 미국, 멕시코, 우즈베키스탄, 인도, 콜롬비아 등
2	건설광산기계	1,222,963	1,487,701	21.6	벨기에, 중국, 미국, 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 등
3	원동기 및 펌프	1,592,270	1,480,565	-7.0	중국, 미국, 멕시코, 일본, 이집트, 러시아 등
4	금속공작기계	1,090,819	1,452,145	33.1	미국, 중국, 독일, 이탈리아, 인도, 영국, 터키 등
5	기계요소	945,338	976,597	3.3	중국, 일본, 미국, 독일, 캐나다, 인도, 멕시코 등
6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1,265,473	913,756	-27.8	미국, 네덜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인도, 터키 등
7	자동차	654,982	772,416	17.9	미국, 이탈리아, 독일, 멕시코, 캐나다 등
8	섬유 및 화학기계	833,459	709,344	-14.9	미국, 캐나다, 러시아, 중국, 우즈베키스탄, 일본 등
9	냉장고	839,825	516,455	-38.5	미국, 호주, UAE, 중국, 캐나다, 이스라엘, 멕시코 등
10	전력용기기	710,314	491,054	-30.9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인도, 중국, 베트남 등
11	가정용회전기기	848,699	462,987	-45.4	미국, 대만, 호주, 멕시코, 캐나다, 이란, 러시아 등
12	선박, 해양구조물 및 부품	1,091,027	402,742	-63.1	중국, 그리스, 싱가포르, 독일, 미국, 필리핀 등
13	기타기계류	353,789	377,774	6.8	중국, 홍콩, 미국, 베트남, 인도, 프랑스, 일본 등
14	항공기 및 부품	148,943	280,407	88.3	미국, 영국, 프랑스, 폴란드, 이스라엘, 일본 등
15	운반하역기계	245,156	279,860	14.2	체코, 중국, 미국, 인도, 브라질, 멕시코 등
16	철강판	240,866	276,762	14.9	태국, 벨기에,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폴란드 등
17	선재, 봉강 및 철근	196,770	266,874	35.6	대만, 인도, 중국, 일본, 태국, 이탈리아, 베트남 등
18	반도체	237,445	251,364	5.9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대만, 필리핀, 베트남 등
19	기구부품	258,747	242,466	-6.3	베트남, 중국, 필리핀, 대만 등
20	주단조품	192,039	203,616	6.0	일본, UAE, 미국, 중국, 오만, 베트남 등

<자료 : KITA 통계 가공>

※ 밑줄이 있는 국가는 품목당 전체 수출액의 1/3이상인 국가

- 반대로 수출액이 감소한 품목은 ‘선박, 해양구조물 및 부품’(-63.1%), ‘가정용회전기기’(-45.4%), ‘전력용기기’(-30.9%), ‘기구부품’(-9.9%), ‘기계요소’(-6.9%),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5.4%), ‘자동차 부품’(-3.1%) 등임.
- 창원 최대 수출품인 ‘자동차 부품’의 주요 수출국은 중국, 미국, 멕시코, 우즈베키스탄, 인도, 콜롬비아, 일본, 독일 등임. 2018년 미국, 멕시코, 우즈베키스탄, 콜롬비아로의 수출은 증가했지만, 중국, 인도, 일본 등 對아시아 수출은 감소했음.

2) 주요 수입품목(MTI²⁾ 3단위 기준)

- 2018년 창원시 주요 수입품은 ‘기계요소’(6억 6,324만 불), ‘원동기 및 펌프’(6억 6,053만 불), ‘산업용 전기기기’(4억 984만 불), ‘철강판’(3억 4,505만 불),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2억 8,311만 불), ‘알루미늄’(2억 5,647만 불), ‘금속공작기계’(2억 805만 불) 등임.
- 수입액이 증가한 품목은 ‘전기부품’(+56.7%),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41.2%), ‘고무제품’(+32.6%),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29.5%), ‘원동기 및 펌프’(+17.1%), ‘철강판’(+14.2%), ‘산업용 전기기기’(+12.7%), ‘기계요소’(+12.2%) 등임.
- 반대로 수입액이 감소한 품목은 ‘알루미늄’(-25.3%), ‘기타기계류’(-18.9%), ‘계측제어분석기’(-11.9%), ‘선재·봉강 및 철근’(-11.4%), ‘자동차부품’(-5.9%) 등임.
- ‘철강판’, ‘전기부품’, ‘선재·봉강 및 철근’,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등은 전체 수입액의 1/3 이상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했음. ‘산업용 전기기기’, ‘금속공작기계’, ‘합금철·선철 및 고철’, ‘고무제품’, ‘기타기계류’ 등은 1/3 이상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했음.

2) 무역동향분석에 사용하는 품목분류 코드로 비슷한 종류의 HS코드를 묶어 코드와 품목명을 부여한 체계

2018년 창원시 주요 수입품

순번	품 목 (MTI 3단위)	2017 (천불)	2018 (천불)	증감 (%)	주요 수입국
1	기계요소	590,895	663,241	12.2	일본, 독일, 중국, 미국, 루마니아 등
2	원동기 및 펌프	563,954	660,527	17.1	미국, 독일, 일본, 스웨덴, 중국 등
3	산업용 전기기기	363,497	409,841	12.7	일본, 중국, 독일, 베트남, 필리핀, 미국 등
4	철강판	302,196	345,046	14.2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 프랑스, 일본, 스웨덴 등
5	선박, 해양구조물 및 부품	218,636	283,114	29.5	노르웨이, 독일, 중국, 일본 등
6	알루미늄	343,118	256,474	-25.3	미국, 인도, 호주, 중국, 말레이시아, 이란 등
7	금속공작기계	204,879	208,052	1.5	일본, 중국, 독일, 대만 등
8	항공기 및 부품	185,169	192,817	4.1	미국, 영국, 프랑스 등
9	합금철, 선철 및 고철	179,349	180,423	0.6	일본,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네시아, 카즈흐스탄 등
10	전기부품	113,579	178,032	56.7	중국, 일본, 미국 등
11	계측제어분석기	187,326	165,012	-11.9	미국, 독일, 대만, 일본 등
12	자동차부품	133,310	125,478	-5.9	일본, 중국, 독일, 미국 등
13	니켈제품	106,057	118,826	12.0	일본, 마다가스카르, 미국, 스웨덴 등
14	철강관 및 철강선	98,314	113,534	15.5	일본, 중국, 프랑스 등
15	아연제품	100,282	100,218	-0.1	인도, 이란 등
16	선재, 봉강 및 철근	112,274	99,447	-11.4	중국, 일본, 대만 등
17	전력용기기	93,230	98,391	5.5	일본, 중국, 독일 등
18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59,446	83,952	41.2	중국, 일본, 독일 등
19	고무제품	62,638	83,034	32.6	일본, 중국 등
20	기타기계류	96,152	77,951	-18.9	일본, 독일, 중국, 미국 등

<자료 : KITA 통계 가공>

※ 밑줄이 있는 국가는 품목당 전체 수입액의 1/3 이상

4. 지역별 수출입

- 특별시, 광역시를 포함한 2018년 지역별 무역수지는 창원시가 102억 4,240만 불 흑자를 기록해 충남 아산시(624억 1,950만 불), 울산광역시(342억 4,442만 불), 경기 용인시(249억 8,708만 불), 경북 구미시(179억 7,686만 불), 충북 청주시(148억 404만 불), 경남 거제시(110억 5,621만 불)에 이어 7번째를 기록했음.
- 수출총액은 창원시가 161억 1,268만 불로 울산광역시(703억 1,862만 불), 서울특별시(646억 4,240만 불), 충남 아산시(646억 3,751만 불), 인천광역시(408억 170만 불), 경기 용인시(320억 1,336만 불), 전남 여수시(289억 7,229만 불), 경기 이천시(212억 2,986만 불), 경북 구미시(207억 6,541만 불), 충북 청주시(178억 410만 불), 경기 화성시(164억 2,243만 불)에 이어 11번째임.
- 창원시 수출이 2년 연속 감소한 가운데, 반도체와 석유화학 산업이 밀집한 경기 이천시(+55.8%), 경기 용인시(+37.5%), 전남 여수시(+21.3%), 충북 청주시(+17.8%), 충남 아산시(+15.1%), 울산광역시(+5.4%) 등의 수출은 큰 폭의 증가를 보였음.
조선산업이 밀집한 거제시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7.5% 감소한 122억 8723만 불, 수입액은 12억 3,102만 불을 기록해 무역수지 흑자액은 전년 동기 대비 60.0% 감소한 110억 5,621만 불 실적을 올렸음.
- 경남 시·군 지자체들의 수출실적은 창원시가 161억 1,268만 불(비중 40.0%)로 가장 많고, 거제시 122억 8,723만 불(30.5%), 양산시 31억 8,798만 불(7.9%), 김해시 30억 1,666만 불(7.5%), 사천시 24억 5,490만 불(6.1%), 함안군 9억 6,136만 불(2.4%) 순임.

2018년 전국 지역별 무역수지 현황(특별시, 광역시 포함)

(단위 : 천불)

	지역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총교역액
1	충남 아산시	64,637,514 (15.1%)	2,218,011 (3.7%)	62,419,502 (15.5%)	66,855,525 (14.7%)
2	울산광역시	70,318,618 (5.4%)	36,074,199 (19.2%)	34,244,419 (-6.0%)	106,392,817 (9.7%)
3	경기 용인시	32,013,364 (37.5%)	7,026,288 (-21.8%)	24,987,077 (74.7%)	39,039,652 (21.0%)
4	경북 구미시	20,765,407 (-20.9%)	2,788,550 (-1.6%)	17,976,857 (-23.3%)	23,553,957 (-19.1%)
5	충북 청주시	17,804,103 (17.8%)	3,000,066 (7.9%)	14,804,036 (20.0%)	20,804,169 (16.3%)
6	경남 거제시	12,287,231 (-57.5%)	1,231,018 (-4.0%)	11,056,213 (-60.0%)	13,518,249 (-55.3%)
7	경남 창원시	16,112,676 (-8.5%)	5,870,272 (7.5%)	10,242,404 (-15.7%)	21,982,948 (-4.7%)
8	경기 이천시	21,229,862 (55.8%)	13,498,265 (40.1%)	7,731,598 (93.7%)	34,728,127 (49.3%)
9	광주광역시	11,002,980 (0.9%)	4,953,602 (-0.6%)	6,049,377 (2.2%)	15,956,582 (0.4%)
10	경기 파주시	8,929,941 (1.8%)	3,353,866 (9.6%)	5,576,075 (-2.3%)	12,283,807 (3.9%)
11	경기 화성시	16,422,426 (4.5%)	12,129,734 (37.1%)	4,292,692 (-37.5%)	28,552,160 (16.2%)
12	경북 포항시	10,904,177 (8.4%)	7,082,744 (10.4%)	3,821,433 (4.9%)	17,986,921 (9.2%)
13	대구광역시	8,102,428 (12.3%)	4,653,243 (4.8%)	3,449,184 (24.3%)	12,755,671 (9.5%)
14	경기 김포시	5,425,375 (16.8%)	2,056,078 (5.1%)	3,369,297 (25.3%)	7,481,453 (13.4%)
15	충남 천안시	7,984,276 (10.4%)	5,442,881 (24.0%)	2,541,395 (-10.5%)	13,427,157 (15.5%)
16	광주 광산구	3,662,268 (-9.6%)	1,325,714 (-5.6%)	2,336,555 (-11.7%)	4,987,982 (-8.5%)
17	경기 안산시	8,070,692 (-7.8%)	6,094,913 (-0.8%)	1,975,779 (-24.3%)	14,165,605 (-4.9%)
18	전남 영암군	2,380,098 (-1.9%)	440,192 (6.6%)	1,939,906 (-3.6%)	2,820,290 (-0.7%)
19	경기 광명시	3,153,209 (-1.5%)	1,485,311 (9.2%)	1,667,898 (-9.4%)	4,638,520 (1.7%)
20	전남 여수시	28,972,294 (21.3%)	27,469,994 (37.0%)	1,502,301 (-60.7%)	56,442,288 (28.5%)
	총계	605,169,190 (5.5%)	535,172,391 (11.8%)	69,996,799 (-26.5%)	1,140,341,581 (8.4%)

※ ()는 2017년 대비 증감률.

<자료 : KITA.net>

5. 가공단계별 수출입

- 2018년 가공단계별 수출실적을 보면, 중간재³⁾ 수출이 75억 2,571만 불로 전체 수출의 46.7%를 차지했음.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5% 감소한 실적임.

자본재⁴⁾ 수출은 62억 7,730만 불로 전체 39.0%를 차지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9.1% 감소했음.

- 2018년 가공단계별 수입실적을 보면, 중간재 수입이 41억 7,829만 불로 전체 수출의 71.2%를 차지했음.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0% 증가한 실적임.

자본재 수입은 12억 8,179만 불로 전체 21.8%를 차지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했음.

2018년 창원시 가공단계별 수출입

(단위 : 천불)

제품의 성질	수출			수입		
	2017년	2018년	증감률	2017년	2018년	증감률
1차산품	9,083 (0.1%)	14,434 (0.1%)	58.9%	219,832 (4.0%)	200,806 (3.4%)	-8.7%
소비재	2,451,622 (13.9%)	2,141,948 (13.3%)	-12.6%	135,624 (2.5%)	149,095 (2.5%)	9.9%
자본재	6,903,156 (39.2%)	6,277,298 (39.0%)	-9.1%	1,204,615 (22.0%)	1,281,788 (21.8%)	6.4%
중간재	8,138,114 (46.2%)	7,525,714 (46.7%)	-7.5%	3,867,699 (70.8%)	4,178,288 (71.2%)	8.0%
기타	106,257 (0.6%)	153,282 (1.0%)	44.3%	35,489 (0.6%)	60,295 (1.0%)	69.9%
총계	17,608,233	16,112,676	-8.5%	5,463,258	5,870,272	7.5%

※ ()는 창원시 총 수출입 중 비중

<자료 : KITA>

3)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재화

4)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

6. 국가(지역)별 수출입

- 2018년 창원시 주요 교역국은 미국(교역액 47억 2,115만 불), 중국(41억 1,033만 불), 일본(18억 8,341만 불), 독일(12억 6,487만 불), 인도(9억 1,041만 불) 등임.
- 창원은 최대 교역국인 미국에 39억 1,928만 불(+3.6%)을 수출했고, 8억 187만 불(+3.9%)을 수입해 31억 1,740만 부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음. 주요 수출품은 ‘섬유기계’, ‘냉장고’, ‘원동기 및 펌프’, ‘자동차부품’, ‘금속공작기계’,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건설광산기계’, ‘자동차’ 등 완성품이 대부분을 차지함.
창원의 對미 ‘항공기 부품’(+120.3%), ‘자동차’(+82.3%), ‘금속공작기계’(+56.8%), ‘건설광산기계’(+41.7%),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37.6%) 수출은 큰 폭의 증가를 보였지만, 주력 수출품인 ‘가정용 회전기기’(세탁기)(-47.7%), ‘냉장고’(-20.2%), ‘섬유 및 화학기계’(건조기)(-9.1%) 가전제품 수출이 감소했음.
- 창원은 최대 수입국인 중국에 29억 22만 불(-0.8%)을 수출했고, 12억 1,011만 불(2.4%)을 수입해 16억 9,011만 불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음.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부품’, ‘원동기 및 펌프’, ‘기계요소’, ‘건설광산기계’, ‘금속공작기계’,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등임. 주요 수입품은 ‘철강판’, ‘기계요소’, ‘전기부품’, ‘선재·봉강 및 철근’, ‘원동기 및 펌프’, ‘산업용 전기기기’, ‘금속공작기계’ 등임.
- 창원의 주력 교역국가인 미국, 중국, 일본, EU 제외한 인도네시아(+61.4%), 우즈베키스탄(+42.1%), 인도(+8.1%), 태국(+3.7%) 등 아시아 국가 교역량 증가가 눈에 띈. 신흥공업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들 국가로의 진출 교역 확대는 국내 대기업의 현지 투자와 이에 따른 공급업체들의 잇단 진출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2018년 창원 주요 교역국

(단위 : 천불)

	국가명	수출액	수입액	무역지수	총교역액
1	미국	3,919,276 (3.6%)	801,871 (3.9%)	3,117,404 (3.6%)	4,721,147 (3.7%)
2	중국	2,900,218 (-0.8%)	1,210,113 (2.4%)	1,690,105 (-3.0%)	4,110,331 (0.1%)
3	일본	703,145 (1.2%)	1,180,261 (5.9%)	-477,116 (13.7%)	1,883,406 (4.1%)
4	독일	612,214 (13.7%)	652,658 (20.8%)	-40,445 (2,150.7%)	1,264,872 (17.2%)
5	인도(인디아)	743,629 (12.1%)	166,782 (-6.8%)	576,847 (19.1%)	910,411 (8.1%)
6	베트남	511,811 (-41.8%)	167,940 (94.0%)	343,872 (-56.7%)	679,751 (-29.7%)
7	멕시코	594,085 (-30.8%)	40,816 (16.6%)	553,269 (-32.9%)	634,901 (-29.0%)
8	이탈리아	376,222 (47.9%)	80,923 (31.9%)	295,299 (53.0%)	457,145 (44.8%)
9	대만	200,869 (23.7%)	174,724 (12.7%)	26,145 (256.7%)	375,593 (18.3%)
10	벨기에	350,770 (8.0%)	14,600 (-36.6%)	336,170 (11.4%)	365,370 (5.1%)
11	인도네시아	255,997 (51.0%)	92,132 (99.4%)	163,865 (32.9%)	348,129 (61.4%)
12	캐나다	323,799 (14.4%)	23,456 (-48.3%)	300,343 (26.4%)	347,255 (5.8%)
13	영국	233,509 (-8.2%)	109,400 (3.5%)	124,109 (-16.5%)	342,909 (-4.7%)
14	태국	284,421 (1.1%)	47,944 (22.3%)	236,476 (-2.3%)	332,365 (3.7%)
15	우즈베키스탄	326,998 (41.6%)	1,050 (52,400.0%)	325,949 (41.2%)	328,048 (42.1%)
	총계	16,112,676 -8.5%	5,870,272 (7.5%)	10,242,404 (-15.7%)	21,982,948 (-4.7%)

※ ()는 2017년 대비 증감율

<자료 : KITA>

Ⅲ. 요약 및 시사점

- 전국 사상 최대 수출실적 속, 창원 수출 2006년 수준에 머물러
- 산업기계 수출 호조로 타 산업 수출 감소분 일정부분 상쇄
- 보호무역기조 영향, 가전제품 수출 급감

- 2018년 창원 수출은 161억 1,268만 불(-8.5%), 수입은 58억 7,027만 불(+7.5%)로 무역수지 흑자액은 102억 4,240만 불(-15.7%), 총교역액은 219억 8,295만 불(-4.7%) 실적을 올렸음. 전국 수출은 반도체, 석유화학의 수출 호조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반면, 창원 수출은 2006년(164억 2,464만 불)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 금속공작기계(+33.1%), 건설광산기계(+21.6%) 수출 호조가 조선, 기초산업기계 실적 악화와 안정적 수출실적을 유지해온 가전제품, 자동차부품 수출이 감소분을 일정부분 상쇄했음.

금속공작기계 수출은 중국과 터키를 제외한 스페인(+237.7%), 인도(+235.2%), 베트남(+168.0%), 프랑스(+143.0%), 미국(+56.8%), 독일(+50.9%), 영국(+59.5%), 러시아(+33.2%) 등 대부분의 국가로 큰 폭의 증가를 보였음. 특히 인도와 스페인으로의 수출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음.

건설광산기계는 태국(+156.2%), 인도네시아(+79.6%), 중국(+53.8%), 필리핀(+43.7%), 미국(+41.7%), 러시아(+23.1%)로 수출이 급증했음.

-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등에 따라 가정용전자제품(-40.3%) 수출이 급감했음. 창원의 對미 주력 수출품은 건조기(섬유기계),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이 주를 이룸.

특히 창원의 對미 세탁기 수출은 전년 대비 49.7%로 급락했음.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로 사실상 일정 부문(한국산 對미 세탁기 수출 120만대 초과 시 50% 관세)이상 수출이 불가한 데 따른 것임.

- 2018년 창원 수출은 산업 전반의 실적이 악화하는 가운데, 금속공작기계와 건설광산기계 등 산업기계 수출호조가 전체 실적의 버팀목이 되었음. 하지만 산업의 수요 사이클 상 지난해와 같은 호조를 그대로 이어가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임.
- 창원의 수출실적의 회복은 글로벌 교역량의 증가가 가장 중요한 요인임. 2018년은 미국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와 창원 주요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등 창원산업의 수출에 있어서는 최악의 환경이 조성된 한해였음.
- 다만, 향후 수출전망의 척도라 할 수 있는 자본재, 중간재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인 일임.